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을 향한 자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20절

Tag: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2:11-20)

과거나 현재나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사는 종교와 상관 없이 언제든지, 어느 사회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사회나 후진사회(혹은 원시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자유가 주어지는가?(국민의 몇%?) 실제로 자유란 국가 단위로 그 질이 결정된다. 먼저 영역이고, 그 영역을 주관하는 통치체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문화적인 의식이고 그 다음이 책임감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이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자유이다.

2. 그 사회는 안전한가? (2번과 3번의 순서도 중요하다.)

3. 사람들의 소유(사유) 욕구를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충족시켜 주는가?

4.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있는가? +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5. 풍요로운 사회인가?

6.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가?

7. 통치기구는 효율적인가?

8. 사람들의 성공확률이 높은 편인가? (성공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과거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성공 기업이 25년 걸려 10조를 달성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넥슨 13년), 요즘은 5년 이내에 10조를 달성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facebook, twitter, 스냅챗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조 달성)

9. 편리한가? (시장, 교통, 행정, 판매, 구매, 의식주, 교육 등)

10. 만족한가?

11. 여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선진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인가?

-누군가의 희생과 핍박의 댓가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회는 올바른가?

-희생과 핍박을 받는 인구의 퍼센티지와 그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의 퍼센티지는?

-과연 선진국은 후진국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나마 후진국이 선진국의 문화와 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왜 수많은 후진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1.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할 수 없어서
2. 전통문화를 바꾸기 힘들어서
3.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획득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4.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갈망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

-왜 진정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자신의 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회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다.

-기독교인은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구조적인 죄악 포함), 독재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우상숭배와 미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그 자유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였다.

.기독교인들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식구들, 이웃들을 향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다.(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었다.)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쌓여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풍요가 쌓이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신뢰가 쌓이고 이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나라들이 생기면서 드디어 자본이 쌓이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문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나라의 실현의지는 선진사회를 지향하였다. (가장 구체적으로 미국 건국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문명을 직수입하였다.

(일본은 독일의 문명을)

### <성경 말씀 해설>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적극적인 선행.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통치 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권한다.)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결과적으로 그 자유는 무엇을 해방하는가?

-나의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시킨다.

-나의 삶과 문명에 대한 무지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나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나를 톱니바퀴의 삶에서 해방시킨다.

-나를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

-나의 풍요를 창조적이고 더 문명스러운 삶에 투자하게 한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자유는 돈과 같다. 당신은 자유를 탕진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을 행할 것인가?



<찬양예배>

제목 : 본성과 양육      성경: 예레미야 3장 14-19절

Tag:

14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렘 3:14-19)

본성과 양육에 대한 논쟁과 연구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사람은 타고 나는가? 아니면 양육되는가?

1. 본성

-핏줄은 속일 수 없다?

-에서의 성향과 야곱의 성향은 뱃속에서 이미 정해졌다?

-극단적인 우생학?

-본성이란 얼마나 뱃속에서 정해진다.

-그렇다면 부모가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본성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교가 중요하다.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여 자녀를 낳아야 한다.

## 2. 양육 (대개는 13세 이전에 마무리 됨)

-양육은 조작된 환경에서 할 수 없다.

-양육은 가정에서 완성된다.(유치원이나 학교는 돕는 기관)

-아버지가 제일 중요, 두 번째가 어머니. 나머지는 돕는 자들.

-양육의 내용은 본성에 이미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며(개인적인 시간차가 있지만 대부분 평균이 있음)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그때 그때 양질의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미리 양육한다고 효과 있는 것 아님.

-이때 부모 자신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나, 양육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면 부모 자신도 교정되는 경우가 많음.

-부모 자신의 취향도 양육에 의한 것이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건강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과감하게 수정해야 함.(이것이 부모의 희생) 악인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압.

## 3. 성령충만

-13세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제 2의 양육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은 교회와 상의해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성결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제2의 양육은 부모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임.

(자신의 방, 교육, 용돈, 자율권, 등)

#### 4. 구체적인 방법

-결코 싸우지 말라. 큰소리가 나면 아이가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커지고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싸이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지체된다. 담대함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받아주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이가 부모의 숙제를(감정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성공한다. 결국은 과도한 숙제를 떠 안기지 않는 것이 부모의 책임. 대부분의 아이은 부모의 숙제를 받아들인다.)

-아이를 축복하고 양육하라.

-아이의 본성이 더럽혀지지 않고 양질의 경험과 지식이 각인되도록 하라. (본성이란 양육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본성이다.)

-즉 언어능력이란 모국어를 타고나는게 아니라, 13세 이전에 양육되는 언어가 모국어가 된다. 그때의 억양과 사투리가 평생 간다.

-3살 이전에 시각적 본성은 완성된다. (오리는 15일? 생물마다 그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 본성이 된다.)

-사람에게는 각인되는 본성만 1000여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취향, 습관, 음식에 대한 호불호, 성적 취향, 선호하는 직업 등 대부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결정된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평생 간다.)

-가정예배가 가장 효과적이다.

-꼭 자녀와 같이 기도하라.

